



미국과 본국의 합동 변호인단이 일제 전범 한인 피해자들의 미국내 집단 소송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홍철 기자>

일제 징용소송 본국서도 참여

피해자 수만명 동참 합동변호인단 구성

미국내서 추진되고 있는 일제 전범 피해자 집단소송에 본국의 강제 징용·징병 및 정신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키로 결정,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해원 변호사,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미국내 한인 일제 전범 피해자 변호인단은 6일 본국의 피해자 단체 '대일민족소송단(단장 김석원)'의 법정대리인 '대일 민간법률구조회'의 이수경 변호사 등과 회견을 갖고 "본국의 피해자들이 미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일제 전범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리 피셔 변호사 등 현재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내 변호인단은 나치 독일기업 등을 상대로 한 유대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 거액의 보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이 분야의 베테랑 법률그룹이다.

이수경 변호사는 "지난 92년 일본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인심문과 증거

확인 절차도 생략된 채 계속 기각돼 현재 최고법원에 항소, 계류중인 상태"라며 "지난해부터 미국내 소송절차 가능성을 보고 미국내 변호인단과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공동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본국의 피해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미국내 소송을 추진키로 한 본국과 미국의 합동 변호인단은 "현재 대일민족소송단에 의뢰하고 있는 원고만도 1,000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본국과 미국내에서 원고들을 추가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 소송으로부터 혜택 받을 한인들은 최소한 수천,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변호사는 "이 문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송의 승리 여부는 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최경호 기자

<ckho@joongangusa.com>